



어찌다 입원, 병원에서 새해를 맞다



2022년의 마지막과 2023년의 시작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틀 전 갑자기 오른쪽 귀가 숨을 틀어 막은 것처럼 딱딱하게 들려 어제 병원을 찾았는데 결국 돌발성 난청 판정으로 입원하여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다. 사지가 떨정한데 꼼짝없이 주사바늘을 꽂은 채 5박 6일을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입원 첫날 각종 검사를 실시했지만 명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원인 미상의 병들은 모두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분류된다.

끔찍하다면 끔찍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야 하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연말연시를 맞아 미리 세워놓은 선약과 계획들도 줄줄이 있는데 입원이라니! 통원 치료는 불가하냐고 물었더니 돌발성 난청은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입원 치료가 원칙이라고 했다. 그리고 절대 안정이 꼭 필요한데 집에서 그렇게 쉬 수가 있겠냐고 반문하셨다. 쉬긴 뭘 쉬어..... 당연히 안 되지. 엄마 아프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엄마가 눈에 털 보이니 신나서 까부는 게 아이들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입원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기도 했다. 어차피 남편이 30일 금요일은 휴가이고 1월 2일 월요일도 회사 휴일이니 하루 정도만 휴가나 재택을 신청하면 충분히 내 대신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다. 연말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도 많지 않아서 병실도 여유가 있고 병원 검사실도 한적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병원 생활이 분명 조금은 더 수월할 것이다.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지. 아니 즐길

자신까진 없지만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사두고 못 읽은 책도 끝내고 평소 써보고 싶었던 주제로 글도 좀 써보고 나름 어떤 방해 없이 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5인실 병실에 나까지 네 명이 있었는데 오늘 두 명이 퇴원을 했다. 내일이면 올해 마지막날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퇴원을 서두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병실마다 환자가 많지 않다. 아예 빈 병실도 여럿 보인다. 병원은 결코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곳이 아니니깐.

우리 병실에 다른 환자는 내 침대 맞은편에 할머니 환자로 남편이 보호자로 상주하고 계신다. 코골이, 기침, 가래 뱉는 소리로 어젯밤 나를 뜯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신 분들이기도 하다. 바로 지금 그 두 분의 대화 내용은 이렇다.

할머니 “병실은 이렇게 조용한데..... 짹짹 짹 짹”
할아버지 “시끄러우면 안 되지. 짹짹 짹 짹”
할머니 “커어어 억(트립)”

노부부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과자 먹는 소리가 온 병실에 울려 퍼진다. 내가 조용히 있으니 두 분은 병실이 조용하다 하시겠지만 나는 엄청 시끄럽다고!

또 병실 밖 복도에서는 환자의 아들로 추측되는 보호자가 의료진 한 명을 세워두고 30분째 설교를 늘어놓고 있다. 굉장히 점잖고 논리적이게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너는 잘못

했고 나는 지금 기분이 매우 언짢으니 제대로 사과하라는 소리다. 와..... 근무 중인 사람을 다른 일도 못하게 하고 저리 오래 붙잡아두는 것은 진짜 아니지 않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을지 모르지만 서로에게 별로 소득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우리 병실 앞이라 나는 시끄럽다고요.

그 설교가 거의 끝나갈 때쯤 간식 먹던 노부부가 깊은 잠에 빠져드신 모양이다. 두 분이 번갈아가며 울트라 사운드로 코를 골기 시작했다. 하... 정말 특별하다 못해 extraordinary한 연말연시이다. 아마도 평생 기억될 순간이 될 것 같다. 커튼 쳐진 베드에 앉아 끊임없이 어르신들의 코골이, 트림, 기침, 가래 뱉는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렇게 나는 2023년 새해를 맞는다.

추신 - 타운뉴스 독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에는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올게요.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 지금이 집을 파실 기회입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

최근 판매한 매물들

780 W Rossslynn AVE FUL	\$950,000
8062 Ainsworth LN La Palma	\$1,350,000
5320 Buck Hill AVE Buena Park	\$2,000,000
11762 Lakeland RD Norwalk	\$740,000
120 Gemstone Irvine	\$1,385,000
11433 Excelsior DR #A NorWalk	\$600,000
5409 Arrowhead AVE Buena Park	\$900,000
988 Glendora Dr. Oceanside 92057	\$825,000
1661 Interlachen M11-286B Seal Beach	\$265,000
4559 Toledo WAY Buena Park	\$581,000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3110 Cochise WAY #102 Fullerton	\$473,000
7770 Youngdale WAY #D Stanton	\$450,000
5087 Argyle DR Buena Park	\$500,000
1001 W Lambert RD #169 La Habra	\$210,000
629 Drake AVE Fullerton	\$893,000
6045 Barry DR Cypress	\$960,000
3143 W Lincoln AVE Anaheim	\$659,000
596 Escenico Lake Forest	\$1,085,000
2615 Tuscany WAY Fullerton	\$1,607,000
6495 Saipan ST Cypress	\$1,002,540